

/ 지역 단신 /

해남군 쓰레기 분리수거 총력

해남군이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95년부터 해남읍 복평리 3만평의 부지에 141억원의 예산을 들여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최첨단 위생처리시설을 조성하고 해남군 전역의 쓰레기를 한 곳에서 처리하고 있다(사진).

하루 31톤의 배출쓰레기 중 매립은 5톤, 소각은 13톤, 음식물퇴비화를 7톤, 재활용으로 6톤을 처리하여 매립과 소각을 줄이고 음식물퇴비화와 재활용처리량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해남=박정숙기자 jopark@

제암산 휴양림내 콘도 개장

보성군 제암산 자연 휴양림 내에 최신식 콘도인 '제암관'이 지난 14일 문을 열었다.

제암관은 면적 711.31㎡의 2층 건물로, 1층에는 세미나실과 가족실(15평 3실), 2층은 가족실과 일반실(15평 7실)로 이루어져 있다.

96년에 처음 조성된 제암산 자연 휴양림은 가족단위로 애용할 수 있는 텐트장 및 숲속의 집(콘도형) 7동과 금계, 칠면조 등 50여 종의 조류 관찰장과 청소년 수련장 등이 조성돼 있다. 통나무집 임대료는 5만 원, 평상 사용료는 5천원, 1일 주차료는 5천원이다. (문의 061-850-5427, 5424)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무안 월두마을서 어린이 갯벌캠프

무안군은 오는 31일~8월 2일까지 2박3일간 무안 현경면 월두마을 갯벌 일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달 머리 어린이 갯벌캠프'를 연다.

무안 갯벌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미래 환경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갯벌캠프는 초등 4~6년 학생 30명을 선착순 입금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1인당 3만원이며 첫날 점심도시락, 세면 도구, 필기구, 간 소매우과 여벌 옷, 모자 등을 준비해야 한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나주 2명중 1명 '만성질환' 위험

'대사성증후군' 않아...뇌졸중·심근경색 우려

40세 이상 987명 검사...농촌건강 적신호

나주시 지역주민 2명중 1명꼴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사성증후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주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나주시가 최근 2개월여에 걸쳐 봉황면 주민 40세 이상 987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45% (444명)가 대사성증후군 유병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의 경우 정상은 22%에 불과한 반면 60%는 고혈압 등으로, 18.1%는 치료중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체질량

지수도 53%만이 정상이었고 45.4%는 과체중이었다. 또 32.8%가 당뇨를 앓고 있고 68.2%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시는 도시민의 대사성증후군 유병률이 평균 20% 초반인 것으로 미뤄 검사결과 주민 건강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지역 대학병원의 협조를 받아오는 9월에 1천여명을 추가로 정밀검사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연령층이 40대 이상인 점을 감안 하더라도 농촌 주민이 성인병에 걸릴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거리가 있어 농민들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가 요구된다"며 "만성질환자는 건강정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유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 암이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을 규명, 효율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코호트(Cohort : 동일한 통계인자를 가진 집단)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나주=최승현기자 srchoi@

◇ 대사성증후군 = 고밀도콜레스테롤(HDL)의 혈중수치는 낮으면서 복부비만, 혈당증가, 지질이상, 좋은 콜레스테롤 감소 등 5가지 문제 가운데 3항목 이상이 포함해 뇌졸중,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 증상이다.



에우니아가 남긴 쓰레기 여수해양경찰서(총경 김용근)는 최근 여수 구항 해양공원 일대 해안가에서 여수관내 각급 기관과 시민단체 600여명이 참가해 태풍 에우니아로 인해 발생한 해안가, 해상 및 수중에 쌓인 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 쓰레기 28톤을 수거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거문도 관광자원 발굴·점근성 높여야”

여수시민협 토론회

여수 거문도지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거문도 관광자원 발굴 노력과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수시민협 주최로 16일 거문도 수협 회의실에서 열린 '거문도·백도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토론회'에서 이덕순(한양대학 관광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거문도·백도로 전수관 등 거문도 내에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음에도 상당수 주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면에서도 기존 자원에 대한 발굴과 보존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싼 요금과 낮은 운행 횟수 등의 불편한 접근성, 도서간 접근성 불량, 불편한 숙박시설, 편의시설 부족 등이 거문도 관광의 저해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백도와 거문도 등대 관광에 그치기 쉬운 단순 관광의 한계를 벗고 해양레포츠 활동을 통한 계절성의 한계 극복, 어촌체험관광상품 개발, 거문도민의 문화공연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도 시차원의 여객선 보조를 통한 관광객 유인과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백도 탐방로의 환경친화적 개설을 통한 상륙 허가 등을 거문도 지구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여객선 운항시간 단축 등의 접근성 개선과 거문도 일주 유람선 도입을 통한 관광상품의 다양성, 거문도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개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분에 나선 안종운 삼산면장은 "자연경관에 의존하지 않고 거문도를 해양스포츠시설 등을 갖춘 아쿠아월드, 거문도 역사박물관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도 시차원의 여객선 보조를 통한 관광객 유인과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백도 탐방로의 환경친화적 개설을 통한 상륙 허가 등을 거문도 지구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정우부동산랜드

☎ (061)-923-7011-807-2213
(전화번호 대상여고교원봉상고분야)

한국공인중개사

☎ (062)-711-0010 (전010-4325-1323
(신정지구 신기중학교 앞)

동자공인중개사

☎ 576-4080 (전) 010-5688-3456
(양산지구 개발지구 빅마트후문)

장성지역

▶ 공장부지, 물류창고

▶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대로 가능

※ 자연계상 물건 올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공장매도

장성군 심계면 4지선접

④ 대지·약300평

⑤ 건물1·7층 437평

⑥ 건물2·7층 248평

매매가 12억(절충가능)

* 장성군 홍통,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 구함:

빛고을랜드공인중개사

☎ 010-9455-2200 (전) 064-764-1500
(양평동 구동초등학교 앞)

동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 대지·부지 및 병원·일자리·경로대·전통시장·

■ 양산지구 개발지구

■ 대지·부지·농지·임야·

아름다운부동산

☎ (062) 062-8945
(전) 010-3162-4989

상가건물

■ 대지·부지·도로·도로변·도로변·도로변·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3114-6103
(우안동 무동도서관거리 농협은행앞)

건물

④ 대지·부지·도로·

■ 대지·부지·도로·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3114-6103
(우안동 무동도서관거리 농협은행앞)

땅

④ 대지·부지·도로·

■ 대지·부지·도로·